

요즘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성교육 의무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보건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홍보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고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성교육 (2)

지난 호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하여 다루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성교육은 하나의 호기심이나 매력(?)으로 대두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이는 교육담당자가 일방적인 성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려고 할 때나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수준에 맞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학생들간의 지적이나 경험의 수준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호에도 이어서 학생들에게 학습의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실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성 상담 전문위원
심 창 교

1. 학습목표

학생들에게

성찰 : 믿고 생각하는 것 보기

추상적인 사고 : 볼 수 없는 것에 관하여 생각하고 이해하기

윤리적인 판단 : 자신의 가치들과 다른 사람들의 의도에 입각하여 판단하기

주변적인 사고 : 다른 누군가의 관점에서 상황 이해하기

연역적 논리 : 일반적 개념을 전개한 다음 일반적인 생각들을 정리해본 다음 구체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세상에서 구체적인 예를 적용해 보도록한다. 이제 성교육 내용을 살펴보자.

--- 성교육의 실제 ---

상황극 이용 사례

1) 상황설정

상황과 상황의 주인공은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일 수도 아니면 자기 자신들이일 수도 있다.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이 굳이 남자나 여자로 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학생들 중에서 자원자를 받아서 한 팀씩 짝을 이루어 성관계를 맺게 되거나 거절하는 상황을 재연해 보게 한다. 또는 자원자 중의 한 명을 골라 막 뒤에 앉혀놓고 그 앞에 의자를 놓아 두어 자원자가 한 사람씩 나와 앉아 막 뒤에 앉아 있는 배우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도록 한다.

또한 상황에는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관계의 정도, 아니면 성관계를 하는 공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설정한다. 만약 성관계가 적합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키스, 포옹, 애무 등에 관련된 이야기로 상황을 설정해도 괜찮다.

2) 상황 ① : 남자친구(여자친구)가 성관계를 하자고 이야기할 경우

(1) 거절하는 경우

남자친구(여자친구)는 온갖 말로 상대방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감언이설로 요구하고 나는 싫어요, 아니오 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싫은지를, 왜 아닌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나머지 학

생들은 가장 공감이 가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준다. 교사는 박수를 친 학생에게 왜 이것이 마음에 들었는지 묻는다.

(2) 서로 성관계를 맺기로 합의할 경우

이때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본다.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피임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대개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교제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를 보고 성관계를 갖기보다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 즉흥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경우가 많고 피임 역시 소홀히 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적극적인 피임 교육이 필요하다. 대개 피임은 여자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피임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 남녀 모두 함께 신경 써야 하는 일이다. 피임에 대해 말을 꺼내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상황극을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피임에 대해 이야기하는지를 보여주도록 한다. 학생들은 역시 가장 공감이 가는 사람에게 박수를 쳐주고, 교사는 왜 공감이 갔는지를 묻는다.

3) 상황 ② : 내가 만약 친한 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혹은 나와 성관계를 한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친구와의 대화장면을 연출해 본다.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한 친구가 임신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인데, 십대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다. 부모를 실망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사들에게 이야기하자니 연극에서처럼 성범죄자 취급을 받아 퇴학당하기 십상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아 자신이 키우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제도도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십대들이 임신한 아이를 낳아서 기를 작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인공임신중절(낙태)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낙태를 하려해도 십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돈이 들기 때문에 쉽게 낙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차일 피일 시간만 끌게 된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위해서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낙태 수술시기를 놓쳐서 출산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게 출산을 한 아기는 거의 다 입양기관에 보내진다. 게다가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친구들끼리 어떻게 해보려 하거나 낙태 약을 먹으면 유산이 된다는 소문만을 믿고 약을 먹다가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십대의 임신과 낙태가 불법이라는 이유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은 병원이나 무면허 돌팔이에게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어 수술 후의 후유증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임신을 했다면 또는 친한 친구가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지 이야기해보자.

-내가 만일 임신을 했다면:

-자기와 성관계를 한 여자 친구가 임신을 했다면:

-친한 친구라면

-교사라면

-부모님이라면:

가장 공감이가는 팀에게 가장 많은 박수를 쳐준다. 임신을 한 친구가 이야기 해올 경우, 그 친구를 더럽게 보거나 소문을 내지 않도록 하며, 친구들끼리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려 하기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기관을 알아본다.

교사는 여기서 구체적인 피임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다. 피임을 하지 않는 성관계에서 요행은 있을 수 없다는 뜻에서 피임 확률 실험을 해보여 주거나 피임 도구와 아울러 다양한 피임법의 실패율, 피임에 관한 슬라이드, 청소년들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주면서 수업을 마무리한다.

2. 용어사전 이용 사례

1) 목표 : 평소 그릇된 신화나 지식을 기반으로 알아온 성 관련 용어들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탈피하여 여성중심의 관점으로 성을 재정의하는 기회를 갖는다.

2) 준비물 : 그룹을 나눌 표시를 한 종이 상자 23개의 성 용어가 적힌 종이 묶음 전

지 검정펜, 파란펜, 붉은펜 (이상 각 모둠 숫자대로 준비) 각종 피임 도구 및 설명서 (콘돔, 페미덤, 경구피임약 살정제 등) 생리 용품, 다양한 성교육 책자, 슬라이드 영사기, 슬라이드 필름, 영사막 등

3) 진행절차 :

(1) 진행교사는 학생들에게 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듣거나 배운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자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도록 당부한다. 성을 자신과 동떨어진 그 무엇으로 사고하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과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2) 진행할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한다. 즉 그룹 토론을 통해 각자 뽑은 성 용어를 정의하는 과정을 거친 후 전체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각 그룹이 정의한 내용 중 옥의 티를 찾아내는 그룹에게 상품이 주어질 것을 알린다.

(3) 준비된 상자에 담긴 종이를 뽑아서 같은 단어를 가진 사람끼리 한 그룹이 된다. 각 그룹에 전지와 색깔 펜과 성교육 과 관련된 책자를 준다. 각 그룹에 교사가 두 명 참가한다. 교사가 주도하여 그룹끼리 간단한 소개를 하고 그룹 토론진행순서를 공유하는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4) 성 용어가 적힌 종이 묶음을 내놓고 각자 한 개씩 뽑도록 한다.

토론은 채택된 용어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관련되는 다른 용어가 나올 경우 그것에 대

한 토론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5) 각각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용어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알고 있던 상식 떠오르는 낱말이나 경험을 말하도록 한다. 친구들의 경험이나 남들에게서 들은 말 등 무엇이든 이야기하도록 한다. 필요하다면 준비된 책자를 참고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좋다는 것을 알린다.

(6) 서로가 상대방의 생각이나 지식 의견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의견을 더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토론이 진행 되도록 한다. 이런 토론과정은 정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성에 대해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음을 알고 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만한 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7) 토론이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판단 되면 전지를 준비해 서기의 기록을 기반으로 이야기된 내용을 적는다. 먼저 용어와 관련된 편견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식을 간단히 적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적는다.

(8) 토론내용이 적힌 전지를 사방 벽에 붙여놓고 서로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잠시 휴식을 가져도 좋고 간식거리를 제공하면서 나뉘었던 그룹을 자연스럽게 한데 모은다. 각 그룹에서 토론된 내용을 공유하는 순서를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이때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서 알렸던 옥의 티를 찾아라를 할 수 있도록 기억을 상기시킨다. 이때 조별(혹은 개인별)로 사방에 게시된 대자부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의논해서 티를 찾아낼 시간을 준다.

(9) 각 그룹의 대표 혹은 전원이 나와서

토론한 내용을 전체 참가자에게 발표한다. 모든 참가자는 보충설명을 해도 되고, 다른 그룹의 경우 질문을 할 수 있다. 극이나 노래로 발표했을 경우도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한다. 이때 자연스럽게 옥의 티를 찾아라 진행한다. 학생들이 찾아낸 티가 올바른 지적이라면 부연설명을 더 하도록 한 후 상품을 준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진행자는 이것에 대한 간단한 토론을 다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10) 진행자를 중심으로 준비된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서 토론된 용어를 포함하여 준비된 전체 성 용어에 대해 다룬다. 학생들이

자주보지 못했을 시각자료로 구성된 슬라이드는 주위를 환기시키면서 뚜렷한 인상과 기억을 심어줄 수 있다. 각 용어와 관련된 핵심정리를 간략하게 전달한다. 옥의 티 코너에서 놓쳐진 부분이 있다면 이때 지적하는 것이 좋다.

(11) 차별하게 분위기를 정리한 후 질문을 받고 원하는 사람에게 못다한 말을 마저 할 기회를 준다.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하는 것도 좋다.

(12) 진행교사는 토론과정에서 자신이 메모할 것을 중심으로 이번 토론의 의의를 상기시키고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

